

챕터 1. HK자율전공학부에 입학한 이유

나의 고등학교 3년 생기부는 사회복지, 아동, 심리 등을 주제로 채워나갔고 그 당시의 나는 내가 심리학과 혹은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여 대학 생활을 하고, 심리학과 혹은 사회복지학과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하지만 고3 수시를 지원할 당시 어느 대학에 진학할지 고민이 많았고 고등학교 선생님께 대학 관련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는데 사회복지 분야는 나중에 아쉬울 때 도전할 기회가 무궁무진하게 많고 도전 할 수 있으니 사회복지 이외에도 다른 전공을 찾아보는게 어떠냐는 고등학교 선생님의 조언으로 사회복지학과 이외에도 여러 학교의 학과들을 찾아보게 되었고 그 중 한경국립대학교 HK자율전공학부를 알게 되었다. 당시의 내가 입시요강을 살펴보았을 때 2025학년도 처음으로 전공자율선택제를 도입하였다는 점과, 전공자율선택 참여 전공을 선택하여 졸업 할 수 있는데 당시 참여 전공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전공의 폭이 넓어 다양한 학과를 나의 적성과 흥미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원서를 접수했다. 시간이 지나 수시 합격 발표가 났고, 여러 대학 중 어느 대학에 진학할지 고민하던 중에 HK자율전공학부가 다양한 전공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에서 20대가 된 나에게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아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선택하게 되었다.

챕터2. HK자율전공학부에 입학했을 때 당시의 고민

입학한다면 전공을 잘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처음의 자신감과 달리, 대학교에 입학하니 너무나도 다양한 전공들이 있어서 이 중 어떤 전공을 선택할지 정말 막막했다.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이유는 고등학교 시절 대학 진학을 위해서 생기부를 채울 때 여러 가지의 주제를 고민 해본 것이 아닌, 한 가지 주제만 탐색했고 그 이외에 다른 주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학과들에 대한 정보가 없었고 자율전공학부에 진학했다는 말에 주변 사람들이 “자율전공학부면, 여러 전공 중에 어떤 전공에 진학해?” 라는 질문을 했을때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웠다. 두 번째 이유는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내가 1학년 때 정한 전공으로 대학교 4년 동안 그 전공의 소속이 되어 4년간 선택한 전공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어떤 전공을 선택할지 막막했고 큰 부담을 느꼈었다. 마지막 이유인 세 번째 이유는 HK자율전공학부가 이번 년도에 처음 신설되어서 학교 측에서도 모든게 처음이고 과 선배가 없다보니 모르는 일이 생겨도 조언을 얻을 수 없어서 막막했기 때문이다.

캡터3. 나의 전공 탐색 과정

나는 한경국립대학교의 여러 전공 중에 경영학과를 고민했는데, 어렸을때부터 국내/해외 기업의 회사 운영 방식, 기업 내/외에서 발생하는 경영 관련 문제들과 그에 따른 해결 방안, 조직에서의 협력 방식, 소비자를 위한 효과적인 마케팅 등 경영학의 여러 주제에 관심과 흥미를 가졌기 때문에 경영학과를 선택했다. 나의 전공 선택에 도움을 준 강의가 두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강의를 윤현철 교수님의 자율전공탐색 강의인데, 자율전공탐색 강의를 수강하며 나의 희망 전공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과제는 전공탐색로드맵 과제였는데 전공탐색로드맵 과제란 3가지의 수행활동을 진행해야 하는데, 첫 번째 활동은 재학생 선배와 인터뷰, 두 번째 활동은 교수님과 인터뷰, 마지막으로 전공 강의를 수강하고 1차로 계획안을 작성한 후, 계획안을 바탕으로 발표를 하는 과제였다. 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처음에는 희망 전공 교수님과 희망 전공 선배님과 인터뷰를 잘 할 수 있을지 막막하고 두려웠다. 하지만 이렇게 직접 인터뷰도 해보고 활동 하나하나를 달성하면서 내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달성해나가며 전공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 뿌듯했다. 아래는 당시 수행했던 과제 중 하나이다.

전공탐색활동#1 결과보고서			
일시	2025.5.10.(토), 2025.6.1(일)	장소	온라인 공간(에브리타임, 카톡)
활동명	경영학 전공 재학생 대상 인터뷰 기록		
이름/학년	3학년 / 2025540049		
참여자 (본인 제외)	경영학 전공 3학년 이충원 경영학 전공 4학년 임지수	선행사유	원래 학교에 재학중이신 재학생과 교수님과 인터뷰를 진행하던 실용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전공 탐색을 할 수 있기에
주요 활동내용	<p>희망 전공인 경영학과 선배님들과 인터뷰를 하기 위해 예브리 타임이라는 앱에서 글을 올려 인터뷰를 해주실 희망 전공인 경영학과 선배님을 구했으나, 한번씩도 구해지지 않아서 카톡 앱을 활용하여 경영학 전공 학생회장님께 인터뷰를 요청하였다.</p> <p>대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두 선배님들 모두 시간 조율에 실패하여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고, 질문지를 먼저 작성한 후 선배님들에게 보내서 답변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p> <p>답변 받은 질문지를 정리한 후, 읽고 난 후 활동을 마무리하였다.</p> <p>(질문지는 7개의 문항으로 작성하였고, 질문지와 답변은 용량 문제로 따로 첨부하였습니다.)</p> <p>(첫 번째 선배님이신 경영학 전공 3학년 이충원 선배님과는 5월 10일에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두 번째 선배님이신 경영학 전공 4학년 임지수 선배님과는 6월 1일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p>		
느낀점	이전에 경영학과 선배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선배들의 전공 선택 계기와 경영학과에서는 실제로 어떤 학문을 배우는지, 전공에서 배운 과목을 중 가장 흥미로운 부분과 어려운 부분, 중요한 부분, 어떤 활동들을 하여 스트레스를 줄여야 하는지 등의 단순한 것보다는 얻을 수 있는 성장하고 원할지인 답변을 얻을 수 있게 되어 좋았고, 비록 직접 만나서 한 대면 인터뷰는 아쉽게 아쉬웠지만 부담감 없이 선배님들에게 진솔하게 질문하고 전공 선택에 도움이 되는 답변들을 받을 수 있어서 뜻 깊은 활동이었다고 느꼈다. 경영학과 선배님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답변은 두 선배 분들이 하신 답변 중 '결정된 코의 주석 투가 대략이다. 이 활동을 통해 주석 사정의 기본 원리와 거래 방식을 알 수 있다고 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참여하여 순위에 도움이 된다.'였다.		
자신의 전공탐색(선택)에 도움이 되었던 점	경영학에 대해 막연한 관심만을 갖고 있었던 나에게 경영학 전공에서 배우는 주요 과목들의 분야 (acc) 회계, 재무, 마케팅, 인사, 전략, 유통 역사가의 세부 분야), 전공 관련 경험, 채내기가 전공을 준비하기 위하여 추천하는 활동과 같은 상세한 정보들을 알려주셔서 전공 선택에 큰 도움이 되었다.		

전공탐색활동#2 결과보고서			
일시	2025.06.9(월)	장소	인문사회관 203호
활동명	경영학 전공의 교수님과 인터뷰		
이름/학년	양재원 / 2025540049		
참여자 (본인 제외)	위장 전공주임 교수님 (경영학-마케팅전공)	선행사유	지망하는 전공인 경영학과 교수님과 상담을 함으로써 해당 전공에 대해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
주요 활동내용	<p>희망 전공의 멘토링(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려고 했으나, 시간 관계 상으로 참여하지 못해 대면 인터뷰를하기로 결정했다. 희망 전공 교수님과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해서 매일을 통해 교수님에게 가능한 시간을 여쭙어왔고 다행히 시간이 맞아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다.</p> <p>교수님의 인터뷰 방식은 사전에 질문지를 보내고 교수님 연구실에 방문해 교수님에게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녹음하며 인터뷰를 진행했다.</p> <p>인터뷰를 끝낸 후 녹음본을 들으며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고 활동을 마무리 했다.</p>		
느낀점	이런 교수님과 인터뷰를 하며 처음에는 많이 떨리고 교수님과 첫 인터뷰인데,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긴장했으나 인터뷰 할 때 교수님이 엄청 친절했고 아직 전공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1학년의 시점에 맞춰서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셔서 좋았다. 또 교수님이 경향이 많아서 마케팅 분야로 진출할 때 도움이 되는 활동들 어떤 것들을 키워야 좋은지,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에 대해 현실적으로 말씀해주셔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과 중요한 것들에 알아갈 수 있어서 좋았다. 교수님에게 학년 질문 중에 '경영학은 이름 좋지만 정말 공부할만한가?'라는 질문에 교수님이 해주신 답변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된 것 같다. 교수님의 답변은 경영학은 이론과 실무가 함께 있는 과목이며, 응용과 실습을 한다는 교수님의 답변이 전공에 대한 길이 있게 이해할 수 있어 인상 깊었고 도움이 됐다.		
자신의 전공탐색(선택)에 도움이 되었던 점	또한 교수님께서 경영학과 학생에게 필요한 역량으로 3가지가 무엇이라고 질문했는데 영어 관련 능력, 데이터 분석 능력, 데이터 능력 이 3가지가 중요하다고 하셨다. 방향을 제시받은 것 같아서 아직 전공 탐색중인 나에게 큰 도움이 된 것 같다.		

두 번째 강의는 송동엽 교수님의 경영학개론 강의인데, 경영학개론을 수강하면서 경영학을 처음 접한 내가 경영학에 대해 심도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강의 중 가장 인상 깊던 부분은 SWOT 개념을 배울 때였는데, SWOT이란 어떤 대상의 내부와 외부 환경을 네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전략을 세우는 기법이다. 수업 중에 나의 자기 계발서를 작성하는 과제가 주어졌는데 SWOT 개념을 활용하여 나의 단기/장기 목표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설정하며 앞으로의 경영학도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과제를 통해서 깊게 성찰할 계기가 되어 의미 있는 활동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아래 사진은 내가 쓴 나의 자기 계발서 중 일부이다.

2장. SWOT 분석의 정의와 나의 SWOT 분석하기

(1) 선정 이유

2장을 "목표 설정, SWOT 분석의 정의와 나의 SWOT 분석"으로 선정한 이유는 경영학개론 강의를 수강하며 배운 개념 중 SWOT 분석이라는 개념이 흥미로웠고 인상 깊었기 때문에 자기 계발서에 SWOT 분석 개념을 활용하여 스스로 나에 대해서 분석하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2장에서는 SWOT 분석 정의에 대해서 경영학개론 강의 교재인 '스마트 경영학'을 바탕으로 해당 개념을 탐구하고 정리해 작성한 후, 나의 SWOT을 분석하고 작성할 것이다.

(2) SWOT의 정의와 나의 SWOT 분석하기

첫 번째로 경영학개론 강의 교재인 '스마트 경영학'을 활용하여 SWOT에 대해 탐구하고 정리했다. SWOT 분석이란 기업의 내부상황을 분석하여 기업 고유의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을 찾고, 외부 환경에서의 기회(opportunity)와 위협요소(threat)를 분석하는 기법이라고 한다.

이러한 SWOT을 활용하여 4가지의 환경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강점을 사용하는 전략인 '강점-기회 전략 = SO(strength opportunity)', 두 번째로 위협을 회피하기 위해 강점을 사용하는 전략인 '강점-위협 전략 = ST(strength treat)', 세 번째로 약점을 극복함으로써 기회를 활용하는 전략인 '약점-기회 전략 = WO(weakness opportunity)', 마지막으로 위협을 회피하고 약점을 최소화하는 전략인 '약점-위협 전략 = WT(weakness treat)' 이 4가지 환경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전략 수립을 한다면 조직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준다고 한다.

두 번째로 나의 SWOT을 분석하고 정리하자면, 아래 표와 같다. SWOT 분석을 통해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강점/약점, 나에게 주어진 기회/위협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다.

강점 (Strengths)	1. 경영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 2. 조별 활동 조장 경험으로 인해 생긴 리더십 3. 자료 조사 능력, 발표 자료 제작 능력
약점 (Weakness)	1. 발표에 대한 긴장 2. 수학에 대한 두려움 3. 아직 신입생이라서 경력 부족
기회 (Opportunity)	1. HK자율전공학부로서 주어지는 경영학과 탐색 기회들 2. 해외 취업시장 확대 3. AI와 같은 기술 발전
위협 (Threat)	1. 치열한 취업 경쟁 2.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 3. AI로 인한 일자리 대체

이외에도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 HK자율전공학부 학생회 총무부도 해 보고, 동아리에 들어가 임원이 되어 총무쪽을 담당하여 활동도 하며 여러 경험을 하며 1학기를 마무리 한 후, 2학기가 되어 HK자율전공학부 MT를 가게 되었는데 학생회 총무부 차장으로써 MT를 위해서 어떤 물품을 구비하고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총부부 부장과 총무부 부원과 함께 일을 했다. HK자율전공학부는 우리 학년이 1대 학생회기 때문에 선배가 없어 내가 잘하고 있는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힘들기도 했고 어려웠지만 총무부가 함께 열심히 예산안을 짜고 잘 구입하고 MT를 잘 다녀 와서 뿌듯했다. 심화전공이해 강의를 들으며 경영학과, 행정학과, 법학과, 조경학과 등 여러 학과를 직접 체험해보며 나의 희망 전공인 경영학과 이외에도 다른 학과를 경험해보고 이런 학과도 있구나를 알게 된 것 같다. 아래 사진은 여러 전공 중 조경학과 전공 체험 당시 찍었던 사진이다.



전공 탐색을 위해 전공 한스폰, 경영학전공 취업특강 등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나는 그 프로그램 중 한경동행 멘토단 프로그램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다. 그동안의 희망 전공인 경영학 전공을 위해 여러 활동을 해왔지만 다 회성이 아닌 1회성으로 끝나서 많이 아쉬웠는데, 한경동행 멘토단 프로그램은 여러번 선배와 멘토멘티 활동을 하여 좋았던 것 같다. 처음에는 선배와 잘 말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됐는데 선배와 멘토링 활동을 하며 경영학과에 대해서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고, 학과 이외에도 공모전, 자격증 등 유용한 정보를 멘토링 활동을 통해 알 수 있게 되어서 유익한 활동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여러 활동들을 통해 후회 없는 대학 생활을 보낸 것 같다.

챕터4. 전공탐색 이외의 활동

나는 경영학과로 전공을 정했지만, 아쉬움이 컸는데 바로 사회복지에 관한 아쉬움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고자 대학에 입학하고 여러 정보를 찾아봤는데 정보를 찾아보며 나와 맞는 활동을 찾았다. 바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진행하는 대학교청소년교육봉사, 다문화 탈북학생 멘토링인데 나는 다문화 탈북학생 멘토링으로 지원했고 운이 좋아 아동센터에서 일하게 되었다. 가서 내가 한 일은 아동들의 학습을 도와주고, 아동들의 이야기도 들어주며 친구같은 선생님이 되어준 것인데 아동센터 내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보조했다. 아동센터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있었는데 아이들의 성장을 직접 도우며 아이들과 여러 좋은 추억들을 쌓아 너무 뿌듯했다. 아래 사진은 내가 다문화 탈북학생 멘토링 활동 중 찍은 사진들이다.



챕터5. 느낀점

처음 입학했을 당시 스스로 생각하던 질문이 있었다. “여러 전공중에서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지난 1학기과 2학기는 두려움과 설렘 반반으로 대학 생활을 해왔던 것 같다. 내 주변 고등학교 친구들은 이미 명확한 전공을 가지고 전공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나는 다양한 전공 중 고민하면서 전공 탐색을 해왔던 것 같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20대 대학생 시절 특별한 경험으로 남게 된 것 같다. 처음 입학했을 당시 질문에 답을 던지자면, 지금의 난 후회 없이 좋은 대학 생활을 한 것 같다.